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 현황과 다문화교육 발전 방향

조화성 (공주대학교 강사)
(hwscho@hanmail.net)



I. 서론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망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생의 다문화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이 이주민, 내국인 등 대상별로 분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통의 비전과 목표, 공통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글은 다문화 교육은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를 포괄하는 다문화 시민 정체성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

의 현황을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다문화 시민 정체성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제기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외국 유학생의 증가, 대학생들의 어학연수, 외국여행 등 외국의 문화를 접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의식과 이를 위한 다문화 교육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글의 순서는 먼저 다문화 교육 방향에 관한 논의를 위한 전초로서 다문화 의식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라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 현황을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교육의 주요 논점을 제기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논점과 대학생 다문화 의식 현황을 고려하여 대학생 다문화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II. 대학생 다문화 의식의 현황과 특징

1. 다문화 의식과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은 논자마다 표현을 달리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다원화 사회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를 다양한 교육적 수단을 통해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재경 외 2010; 권충훈 외 2008; 황정미 2010)한편, 이러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정의와 논의에서 고려할 점은 이상적 규범적 개념정의보다 교육의 목표와 주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 시민(multicultural citizen)의 교육과 양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¹⁾ 다문화주의를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접근할 때 '다문화 국가'와 '다문화 시민'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시민성 함양 교육은 어떤 지식, 태도, 성향 등 문화적 요소들이 다문화적이며, 그 사회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실제적 논의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다문화 사회 주체의 다문화 의식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먼저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의 맥

락과 서구 이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김리카(Kymlicka)는 다문화주의 국가의 최소의 공통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조건은 국가는 단일한 민족집단의 소유라는 생각을 배제하고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수집단, 비지배집단을 동화하거나 배제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는 동화 혹은 배제정책을 통해 소수 및 비지배집단에게 행해졌던 역사적 부정의(unjust)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정책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한편, 김리카는 이러한 다문화주의 국가 중에서 소수 집단의 자치권과 자민족언어를 추구하는 캐나다의 퀘벡 등의 사례와 달리 최근의 이주민, 난민 등에 의해 형성되는 다문화주의 국가에서는 영토적 자율권 등 자치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국가는 여전히 하나의 단일한 국가라는 성격을 유지한다. 즉, 지배적 집단과 새로운 이민자 집단 간의 권력분할의 형태나 복수 언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주된 문제는 학교, 경찰, 법정, 언론, 병원 등 모든 공적 제도들이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성에 기초한 통합을 촉진하며, 국가가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일 것을 요구한다.(Kymlicka, 2003, 151-2)

이러한 김리카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은 다문화주의 국가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동화주의가 아닌 다문화주의를 추구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문제는 이주민의 집단적 자율권과 대표성을 둘러싼 논의보다는 이주민에 대한 각종의 편견과 낙인 등을 극복하고 공적영역에서 시민으로 수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제반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김리카는 다문화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개인의 차원을 분리하여 양자가 따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다문화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은 국가의 차원의 다문화적 변화를 인정하고 다문화 정책을 지지하나, 개인적 차원과 집단 간 상호관계에서 타 집단에 무관심하거나 집단 간 상호 소통 없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시민은 한편에서 다문화주의 국가의 정책과 원칙을 지지할 뿐 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개방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볼 때,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국가와 다문화 시민의 특징과 방향은 <표 1>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한국의 다문화주의 국가와 다문화 시민

대학명	강좌명
다문화주의	한국적 맥락과 주요 내용
다문화주의 국가	영토적 자율권, 문화권, 이중언어 보다 공적영역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개방성과 통합,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편견해소
다문화 시민	국가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상호 소통과 교류

1) 이런 면에서 한국의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시민 없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황정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의 다문화 의식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문화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의식의 분석 개념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관해서는 다문화 시티즌십, 다문화 감수성,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 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다문화 의식에 관한 포괄적이며 다양한 과약을 위해 황정미 외(2007)에서 사용된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이라는 분석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을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분석의 하위차원에서 네 가지의 분석개념을 제시하고 있다.(황정미 외 2007, 49-50)

- ① 사회적 거리감 : 외국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정적 의미에 대한 척도를 채용(외집단에 대한 태도)
- ②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십 :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시티즌십에 대한 인식, 관용성(내집단에 대한 인식)
- ③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외국 및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글로벌 다문화주의와 로컬 다문화주의
- ④ 종족적 배제주의 : EU 척도에 기초한 측정 및 비교

이러한 개념과 측정에 따라 조사 분석된 한국인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 보고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인은 미국을 가장 가깝게 여기며 그 다음으로 새터민, 조선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인 생각하는 한국인의 요건 즉 국민정체성은 혈통이나 민족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며 혈통적 요인보다는 정치·법적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 다양성과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관심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젊은 세대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다양한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미국 일본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넷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다문화 사회의 가치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²⁾

2) 한국인의 서구의 다른 이민국가에 못지 않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는 일정한 제한점을 갖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문화의 초기 사회로 서구 사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종폭등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 이민문제의 정치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문 응답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 판단에 근거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분석개념과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조사 분석한다.

2. 대학생 다문화 의식의 현황과 특징

1) 기존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 관련 연구

장태한(2001)은 한국 대학생들의 인종, 민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타인종 민족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허락할 것인가로, 인종과 민족별로 결혼, 개인클럽 회원, 이웃집, 직장 동료, 시민의 대상으로 수용하는데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태한은 한국 대학생의 타인종 민족 선호도는 한국 대학생들의 서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특히 미국화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백인선호의식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숙(2002)은 대학생이 중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분석하였다. 사회정의나 평등을 지향하는 보편주의 가치가 북한 사람과 친북 정책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지역 감정 태도나 성역할 태도 등 사회의 소수 집단에 보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태도와 공통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평등, 사회정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소수집단이나 약자에 대해 일관되게 보다 개방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치 연관에 대해 김혜숙은 보편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집단만을 내집단으로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외집단으로 범주화시켜 구분하는 경향성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그러한 범주화를 사용하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보편주의 가치 지향은 민족이나 인류전체라는 보다 포괄적인 상위범주에 대한 관심을 연 관시키고 반면 권력 가치 지향은 자신과 직접 연관된 하위범주에 의한 내외집단 범주화의 인식과 적용을 증가시켜, 북한 사람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는 반면, 보편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을 북한사람을 같은 민족 혹은 인류로 분류하여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혜숙 2002, 46-7)

이러한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대학생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옥순(2008)은 해외체류경험과 외국어 사용능력이 대학생들의 문화 간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양한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다문화 교육이 문화 간 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구(2009)는 다문화 교육이 교육대상자의 다문화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다문화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정보 습득 통로 확대, 다문화 교육의 전공영역 및 사회전반으로의 확대, 관념적 영역에서의 다문

화 이해에서 실천 중심의 다문화이해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민성혜 외(2009)는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 역량은 전공과 이주민의 접촉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전공분야와 다문화 이슈의 접목을 통해 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금미(2010)는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적 수용행동의 분석에서 여러 요인 중에서 주관적 규범, 고정관념, 편견 등이 다문화적 수용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은 낮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수용적 행동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재경 외(2010)는 대학생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모듈 개발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라는 교육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강의 중심이 아닌 교육 대상이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모듈 형태의 프로그램을 중시하고 있다.

2) 공주대학교 대학생의 사례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서 제기한 다양한 차원의 다문화 의식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 공주대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³⁾ 설문조사 자료는 표본 추출이 아닌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대표성을 지닌 자료로는 한계를 지닌다. 이 보다는 다문화 의식의 영역으로 포괄되는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다문화 의식 파악의 규정력 있는 개념과 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적 분석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설문조사 항목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이주 목적별 이주민 확대(축소)에 대한 의견 (단위 : %)

	국제결혼이주 여성	생산가능직 외국인 근로자	전문기술직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사업자, 투자자
확대	19.2	33.4	46.5	47.5	72.7	77.7
축소	32.3	23.2	24.2	12.1	7.1	8.1

설문조사 응답에서 확대되어야 할 이주민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유학생이 제일 높고 탈북자가 그 다음을 잇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축소의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주민의 수용의 필요성과 근거는 경제적 측면, 남북 관계의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

3) 설문조사는 2009년 12월 5, 6일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양과목 수강생 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성별로는 남성이 51%, 여성이 49%로 균등하게 분포되었고, 과별로는 교양과목 특성상 29개과의 학생들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그리고 학년으로는 1학년이 53.5%, 2학년이 17%, 3학년이 20%로 저학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정적임을 추론할 수 있다.

(2) 이주민에 대한 국적별(출신지역별) 인상 (평균점수)

	조선족	동남아인	탈북자	미국인
좋은 이미지	4.48	4.91	4.37	4.37
영향력 정도	5.59	5.76	5.29	3.42
능동성 정도	5.18	5.61	5.04	3.74

질문은 1점에서부터 9점까지 척도로 낮은 점수일수록 좋은, 영향력 있는, 능동적인 긍정적 인상을 지님을 의미한다. 좋고 나쁜 이미지의 경우는 동남아인을 제외하고는 4.5미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인과 탈북자가 제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적별 이미지의 보다 분명한 차이는 영향력의 정도와 능동성의 정도에서 미국인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동남아인이 낮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는 조사 응답한 대학생은 이주민의 출신 국적별 이미지에서 미국인을 제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동남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제일 부정적인 인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이주민과의 국적별(출신지역별)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인식 (단위 : %)

	조선족	동남아시아인	탈북자	미국인
국민이 되는 것	83.8	60.6	91.9	77.8
직장동료가 됨	89.9	76.8	86.9	91.9
이웃이 됨	90.9	82.8	89.9	94.9
친구가 됨	83.8	67.7	82.8	90.9
자녀의 배우자	67.7	24.2	46.5	43.4
나 자신의 배우자	28.3	18.2	40.4	43.4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 출신이라는 탈북자와 조선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에서는 미국인과 탈북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자녀의 배우자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배우자로 조선족을 수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상대적인 낮은 선호와 미국인에 대한 높은 선호 경향을 보여준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되는 것, 직장동료와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것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직접적 관계를 맺는 자신과 자녀의 배우자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견해 (평균점수)

이주여성은 당연히 한국요리를 잘 해야 한다	2.80
한국 남성은 아내의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	1.86
이주여성 자녀는 어머니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	1.87
이주여성 모국의 명절, 풍습 챙겨야 한다	1.80
이주여성은 고향의 부모, 가족을 챙겨야한다	1.52

이주의 유형에 따른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이주민에 대한 특정의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각각의 견해에 대해 동의 정도를 1점에서 4점까지의 척도로 나타내고 있으

며, 낮은 점수가 동의 정도가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응답결과는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상기의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이주여성에 우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여성이 한국요리를 잘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견해(권리,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평균점수)

합법적 근로자에게는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1.61
합법적 근로자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2.30
합법적 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2.15
불법 근로자는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2.53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3.48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3.47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3.55
외국인 근로자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	3.10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3.44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는 자신들의 전통과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3.9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기의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는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로, 낮은 점수가 동의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 근로자의 즉각 송환에는 동의하는 견해와 동의하지 않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6)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탈북자에 대한 인상 (평균점수)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2.86
외국인 근로자는 믿고 일을 맡길 수 없다	2.86
외국인 근로자는 옆자리에 앉는 것을 피하고 싶다	2.88
외국인 근로자가 길을 물어오면 되도록 모른 척 하고 싶다	3.19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못 배운 사람이라 아는 것이 적다	3.02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쉽게 이혼한다	2.88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웃에 사는 것을 피하고 싶다	3.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말을 걸어오면 불편할 것 같다	3.18
탈북자는 책임감이 없다	3.15
탈북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2.99
탈북자가 내 옆자리에 앉는 것을 피하고 싶다	3.29
탈북자가 길을 물어오면 되도록 모른 척 하고 싶다	3.40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를 1점에서 4점까지 척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높은 점수가 긍정적 인상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7) 정부 및 사회의 이주민 관련 정책 (평균점수)

한국인들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이다	1.76
외국인 이주자도 열심히 일하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2.83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이나 급여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21

외국인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생활여건에 관한 의식에서 상기의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로 진단하고 있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지만, 응답자 스스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외국인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 (평균점수)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만들때 이주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27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 이주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3.23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2.23
외국인 이주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3.28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2.88
부모의 인종 민족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75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데 정부예산 더 써야 한다	2.71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2.67
탈북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할 때 우대해주어야 한다	3.21

외국인 이주자 정책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인식에서 상기의 주장에 대한 동의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로 응답, 점수가 낮을수록 동의 정도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설문에서 제기된 주장은 전체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 대표성을 증대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응답결과는 전반적으로 동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주민 정책 수립 시 이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동의정도를 제외하고는 소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의견의 적극적 반영,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정부개입에는 동의하나 투표권 제공, 국적 취득, 일자리 제공, 대학입학 우대 등 적극적 조치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주자 국내정책 및 생활 지원 정부 정책 (평균점수)

외국인 이주자를 위해 시청 등 관공서에 외국어 상담창구 운영하는 것	1.66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외국인 학교를 지원하는 것	2.07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	2.78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외국어 신문이나 방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	2.35
제2외국어 교육에 베트남어, 태국어 등 아시아 지역 언어를 포함시키는 것	2.51

정부의 상기의 이주민 정책 방향에 대한 찬성 정도를 1점에서 4점까지 척도로 나타내는데 낮은 점수가 찬성의 정도가 높다. 전반적으로 외국어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찬성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설문의 정책 정책에 관한 주장은 대체로 이주민의 독자적이며 높은 수준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은 이주민의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주민의 독자적인 권리 보장에는 부정적임을 추론할 수 있다.

(10) 외국인 이주자의 증대와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 (평균점수)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2.19
우리나라의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2.23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2.57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2.46

외국인 이주자의 증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1점부터 5점까지 척도로 측정하고 있는데, 낮은 점수가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증대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의 찬성의 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11) 외국과의 문화 교류 (평균점수)

외국영화, 음악, 책 등이 많이 들어오면 한국문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3.69
외국과의 문화교류는 뚜렷한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좋다	2.84
경제발전이 뒤처진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	2.27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워야 한다	2.94

외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한 의견은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로, 낮은 점수가 찬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응답결과는 외국문화의 유입과 교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의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항목에서 먼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에 관한 설문이다.

(단위 : %)

매우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보통이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무응답
19.2	40.4	21.2	5.1	1.0	13.0

응답결과 한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보통이라는 응답과 무응답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 차원보다는 당위적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13)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평균점수)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3.12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2.06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2.04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1.98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1.65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1.59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1.61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1.29
한국 국적을 갖는 것	1.72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	1.78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에 관해 1점부터 4점 척도에 따라 측정된 것으로 낮은 점수가 동의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응답결과,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인정받은 요건이라는 점에 대한 동의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것의 중요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문화, 언어, 동질감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과 국적 여부, 한국 사회에 기여도 항목 역시 중요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서 문화적 요소를 제일 중시하고, 출생, 혈연적 요소보다는 법적 제도적 측면을 더 중시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14) 우리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의견 (평균점수)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3.12
한국이 단일민족을 유지해온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2.07
세계화 시대에는 국적과 인종, 민족을 넘어선 협력이 더 중요하다	1.69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2.51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	2.64

민족과 국가에 대한 견해는 상기의 주장에 대해 1점부터 4점까지 척도에 따라 측정된 것으로 낮은 점수가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세계화 시대 민족을 넘어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족과 국가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 대체적인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 대학생 다문화 의식의 특징

이러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사례에서 나타난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은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다문화 정책 즉, 통합정책에 대한 견해에 관련된 것이다. 통합정책에 대한 견해를 보다 구체화, 세분화하여 파악하기 위해 여기서는 통합정책의 수준과 범위를 고려해 본다. 통합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 보호, 사회적 권리 및 급여 제공에 대한 동의라는 수준과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정치사회적 참여와 대표성의 제고라는 수준의 구분을 통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가 비교적 소극적 차원의 통합이라면 후자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통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 응답한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의 통합정책에 대한 지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 수립 시 이주민의 의견 수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반대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투표권 부여, 일자리 제공, 대학입학 우대 등 적극적 조치와 대표성의 확대에는 소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생활 및 사회 지원 정책의 경우도 관공서에 외국어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외국어 학교 지원, 외국어 신문이나 방송을 지원하는 것, 제2외국어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

둘째, 이주민의 수용에 있어 출신 인종 및 민족 간의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의 문제이다. 이는 이주민 수용의 글로벌 다문화주의(global multiculturalism)와 지역적 다문화주

의(local multiculturalism)로 구분하여 진단할 수 있다.(Kymlicka 2003)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미국인, 탈북자, 동남아시아인 등 이주민의 출신국별 차이를 볼 때, 대학생들의 미국인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호감도 및 긍정적 이민 지, 영향력 이미지에서 미국인이 제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낮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특징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다문화의식은 글로벌 다문화주의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은 인종, 혈통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정치사회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진단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서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의 여건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문화, 언어, 동질감 등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치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 국적 여부,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문제도 혈통적 정체성보다는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응답한 대학생의 한국인 정체성 인식은 언어, 문화, 동질감 등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 조사응답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 특징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인식 차원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보다는 인권침해, 차별 해소 정책에 대해 긍정적 인식
인종 및 출신 지역별 선호 차원 (글로벌 다문화주의 vs. 지역적 다문화주의)	미국인에 대한 선호 뚜렷, 글로벌 다문화주의적 성격
한국인의 정체성 차원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언어, 문화, 동질감 선호, 이주민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 쉽지 않음

종합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은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민의 출신국과 지역별 차별화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혈통적 정체성보다 문화적 정체성 즉, 언어와 문화, 동질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주민과의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다문화 교육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어떻게 대학생들의 인종별, 출신국별 차별화된 이미지와 선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둘째는 이주민과 어떻게 새로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할 것인가이다.

III. 다문화 교육의 발전방향

1. 대학의 다문화 교육 현황

1) 국내 대학의 다문화 교육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⁴⁾

대학의 다문화 관련 센터 및 연구소를 보면, 다문화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각 대학들은 다문화 관련 연구소 및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특히 2008년 법무부가 다문화 사회 통합 주요 거점대학(ABT: Active Brain Tower)를 선정하면서 보다 활성화 되었다. ABT 대학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문화사업과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3〉 대학 내 다문화 관련 센터 및 연구소 현황(서울, 대전·충남지역)

지역	대학	유형	내용
서울	배화여자대학	통합교육지원센터	국제결혼자녀, 장애유아, 유아 토털 교육서비스 및 고도화 사업
	서울교육대	다문화교육센터 (ABT)	- 교육과정 및 평가도구 연구 - 다문화가정 학생관련 DB 구축 - 다문화가정 학생 교수법 및 상담 매뉴얼 개발 - 교사 연수 프로그램 - 멘토링 사업 - 시도교육청별 다문화 교육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ABT)	-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자 양성과정 - 다문화 가족 한국어 강사 연수 - 교수학습개발원의 글로벌 튜터링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ABT)	-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가 이해과정 개설 - 다문화 관련 연구사업 - 다문화 관련 학술대회 개최
	한국외대	다문화교육원 (ABT)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시범 배치, 운영 및 관리 -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기금 마련 프로젝트 진행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자 보수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한양대	다문화 연구소	- 다문화 관련 연구 프로젝트 진행 - 다문화어울림포럼 및 다문화 학술강연 진행
	서울대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 다문화 교육사업 분석, 평가, 모니터링 - 초·중등교사 다문화 교육 직무연수 및 다문화 교육 전문 교원 연수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중앙대	다문화콘텐츠 연구사업단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사업
	상명대	다문화사회연구소	- 다문화 사회 관련 비교 및 이론 연구 - 다문화 정책 연구 및 개발 -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및 예술행사 기획, 운영
	대전충남	목원대	다문화사회통합교육 연구센터(ABT)
건양대		국제교육원(ABT)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진행
충남대		국제교류본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홈스테이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다문화 가정 쌍방향 언어 문화프로그램 진행

4) 이재경 외(2010)의 논문에서 수집된 자료 인용

그리고 대학의 정규 교과목과 학과 개설과목의 측면에서 대학들은 대부분 교양과목으로 다문화사회의 이해 과목을 개설하고 전공과 연계한 다문화 관련 과목들을 신설하고 있다.

〈표-3〉 대학 내 정규 교과목 및 개별학과 개설 과목(서울)

지역	대학	내용
성공회대	아시아사민사회대학 정규 교과목	-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
성균관대	사범대학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지도를 위한 다문화가정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고려대	연계 전공	- 다문화 공존과 인권
서강대	미국문화학 전공 정규 교과목	- 문화적 정체성 - 미국의 다문화주의
	프랑스문화학 전공 정규 교과목	- 프랑스어권의 다문화
연세대	교양과목	-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숙명여대	교양과목	- 다문화시대의 지구촌 - 다문화특강 - 다문화공생론 - 인권과 정의 - 다문화 교육의 이해 - 다문화사회의 이해
이화여대	교양과목	- 글로벌 사회의 다문화주의 - 다문화 간호 - 다문화교육의 이론 및 실제 - 스포츠다문화교육의 이론 및 실제 - 여성, 가족, 다문화교육
중앙대	교양과목	- 한국사회와 다문화
한양대	사범대 기본 이수과목	- 다문화미술교육 - 다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 글로벌 리더십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현황, 특히 대학의 다문화 연구소 및 각종 교과목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 교육의 양과 체계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은 다문화 교육의 이해 등의 일반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내용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생들의 현재 다문화 의식의 특징과 개선 방향을 고려한 반차별 교육, 체험 교육, 다문화 시민교육 등의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교과목과 형식의 개발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문화 교육의 발전 방향

1) 다문화 교육의 목표

다문화 교육의 주요 목표와 내용에 있어 킴리카는 토크니즘(tokenism)과 근본주의를 경

계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정의(justice)를 제시한 바 있다.(Kymlicka 2003)

토크니즘은 1970년대와 80년대 유행한 것으로 다문화 교육의 주요 내용이 타문화에 대한 이국적 요소 즉 전통적 휴일, 습관, 민속춤과 음식 등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손쉬운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지만, 이민자 문화와 정체성을 주변화하고 탈정치화했다는 비판받았다. 아울러 문화에 관한 쟁점과 갈등적 요소를 회피하고 대신 문화의 상업화, 즉 타 문화의 신념, 희망, 정체성 등에 관해 이해함없이 비 구성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소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전한 아이টে으로 축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상반된 견해는 타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타문화와 포용하고 공존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즉, 타문화의 종교, 가정, 국가, 영토 등에 대한 다른 비전과 시각에 관해 학습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타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각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리 쉽지 않지 않으며, 깊이 있는 이해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과연 깊이있는 이해가 타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가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교육의 주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깊게 간직한 신념의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깊이 있는 신념과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실상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문화주의 국가의 원칙을 지지하는 선행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타 문화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문화주의 국가의 원칙을 지지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깊이 있는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의 부분적 불투명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타 집단이 스스로 말하고 대표될 필요가 있다는 점,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는 공존의 방식을 찾을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이 피상적인 문화적 차이에 대한 토크니즘적 교육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는 이상적 요구 사이에 놓여있는 현실적 목표라 할 것이다.

2) 한국 다문화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교육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유형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차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둘째 유형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직업교육 등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셋째 유형은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이 교육의 주된 목적은 다문화 교육을 전달할 강사 및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유형을 통해 볼 때, 다문화 교육이 이주민과 내국인으로 분절되고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대상 유형별 교육은 한편에서 대상자 특성별 교육이라는 장점을 지닐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주민과 내국인의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 이주민과 내국인 모두가 함께하는 '다문화 시민성(citizenship)', '다문화 주민(denizen)'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의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다문화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은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서 직면해야 할 갈등적 요소, 문제점은 회피하고 지나치게 문화적 접근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문화 축제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한국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리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과도한 문화중심적 접근은 이주민을 출신 국가에 따라 고정된 문화를 전제하는 문화민족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황정미 2010) 김리카가 제시했듯이 한국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과 내국인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상호 관용과 공존, 동등함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3) 대학생 다문화 교육의 발전 방향 : 다문화 시민의 정체성 형성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교육을 다문화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반차별의 민주주의 교육, 공통의 정체성 형성 교육이 중요하다. 국제이주시대에는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국가 시대에 놓여있는 구성원의 논리가 지위, 권리, 정체성에서 상호 분리되어 나타날 수 있다.(Benhabib 2004; Jopkke 2007; Brubaker 1992; Soyal 1994) 즉 과거 국민에게만 부여되었던 각종 권리가 외국인에게도 부여되고 있으며, 역으로 각종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형식적 지위와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공통의 정체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점에서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교육은 민주적 과정을 통한 다문화 시민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서 민주적 과정은 한국사회의 각종 제도와 문화 속에 존재하는 차별과 반인권적 요소에 대한 극복을 말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각종 제도 및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민주적 다문화 시민 형성의 과정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 시민 정체성 형성 교육은 한국 대학생 다문화 의식 사례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인의 언어, 문화, 동질감 등 문화적 요소에 기반한 정체성에 대한 대안 형성의 의미를 지닌다. 문화적 정체성의 강조는 한편에서 이주민에게는 한국문화로의 동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에게는 이주민을 자국 문화에 고착된 이미지를 재생산할 수 있다. 이점에서 한국인과 이주민이 다문화 사회의 공통의 주체로서의 다문화 시민, 다문화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다문화 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교육의 전반적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학생 다문화 교육의 재정립 방향을 '다문화 시민의 정체성 형성'으로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의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다문화 의식의 수준과 특징은 이주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반대에 있어 적극적이지만 이주민의 투표권 보장, 대학입학 우대 등 적극적 조치와 대표성 확대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주민의 인종 및 출신 국별 선호 차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인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선호가 낮게 나타나 글로벌 다문화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국민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으로는 언어, 문화, 동질감을 중시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다문화 의식의 현황은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 다문화 시민의 정체성 교육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즉, 이주민의 자치권, 문화권,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강조 보다는 반차별 인권 교육, 한국인과 내국인의 다문화 시민, 주민으로의 공통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강조된다. 또한, 이주민 간의 차별적 선호가 문화적 접촉과 교류의 경험이 미비한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이 보다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교육 내용에서 반차별과 인권 교육의 강화, 이주민 관련 이슈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확대, 지역사회 자원 활동 확대, 학내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상호 소통 노력 확대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민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 및 대학에서의 상호 체험과 참여가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다문화 시민과 생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구, "다문화 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다문화연구』, 통권 1호, 2008.

- 권충훈·김훈희,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경험 선정 아디디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 8, No. 8, 2008.
- 김금미,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계획된 행동의 수정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 15, No. 2, 2010.
- 김옥순, “해외체류경험과 외국어 사용 능력에 따른 문화 감수성 수준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Vol. 5, No. 1, 2008.
- 김혜숙,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Vol. 16, No. 1, 2002.
- 민성혜 이민영,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Vol. 11, No. 1, 2007.
- 이재경·박언주·김효정·조영주, 『대학생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모듈 개발연구』, 문화관광체육부, 2010.
- 임도경 외,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한국대학생 다문화 의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
- 장태한, “한국 대학생의 인종 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14호, 2001.
- 황정미,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담론 201』, Vol. 13, No. 2, 2010.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Christian Joppk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Status, Rights, Identity,” *Citizenship Studies*, Vol. 11, No. 1, 2007.
- Rogers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Seyla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Will Kymlicka,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Education*, Vol. 1, No. 2, 2003.
- Yasemin Soyal,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4)